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07₂₀₁₆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열왕기하 · 마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Galatians 2:20)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7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71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07 2016 Jul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6교구	2 전교인
3 전교인 제5차 성찬식 맥추감사주일	4 전교인	5 16교구	6 8교구	7 18교구	8 5교구	9 전교인
10 전교인	11 전교인	12 17교구	13 9교구	14 13교구	15 14교구	16 전교인
17 전교인	18 전교인	19 11교구	20 2교구	21 12교구	22 7교구	23 전교인
24 전교인	25 전교인	26 10교구	27 1교구	28 15교구	29 4교구	30 전교인
31 전교인						

교회 주요 일정

7월 3일

제5차 성찬식
맥추감사주일

7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 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기도제목

- ① 어떠한 음부의 권세와 이단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시온성과 같은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되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 ④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및 해당 교구 전도, 동역교회 전도 지원 사역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 ⑥ 각 교구와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⑦ 담임목사 청빙위원회가 철저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 ⑧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인도하소서.
- ⑨ 우리 사회에 만연한 퇴폐와 향락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취게 하소서.
- 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본문 열왕기하 11:13~21 찬송가 549장

>>> 본문 해설

‘왕의 만세’ 소리를 들은 아달라가 와서 보니 요아스가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아달라는 옷을 찢으며 반역을 외쳤지만 이미 대세는 요아스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몰아내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달라는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맺도록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된 어린 요아스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여호와와 백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남유다의 백성들은 모든 바알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바알의 제사장인 맛단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을 위해 항상 등불을 주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달라로 인해 다윗의 자손이 모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남겨두시고 그를 키우시고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아달라가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고 왕위에 올라 남유다를 6년 동안 다스리는 것을 볼 때 아무 희망도 없어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 기도 제목

오늘도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¹³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¹⁴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¹⁵ 제사장 여호아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¹⁶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¹⁷ 여호아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¹⁸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¹⁹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²⁰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²¹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칠 세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본문 열왕기하 12:1~9 찬송가 200장

>>> 본문 해설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의 제 칠년에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40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끌어 주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아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산당들을 없애지 못했고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습니다. 산당은 중앙예배를 방해하며 혼합주의 산실이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은 또한 편리함과 타협하고자 하는 적당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요아스 왕도 뿌리 깊은 인본주의로 인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산당이 발미가 되어 그들은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종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웁니다. 요아스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를 이끌어줄 좋은 스승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담당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릴 때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옵소서.

¹예후의 제칠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이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²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아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³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⁴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⁵제사장들이 각 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⁶요아스 왕 제이십삼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⁷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와아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⁸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⁹제사장 여호와아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와의 성전에 가져 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본문 열왕기하 12:10~21 찬송가 329장

>>> 본문 해설

요아스의 말을 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순종하여 한 상자를 구해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연보궤를 만들어 성전 입구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을 맡은 감독관들에게 헌금을 주어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쓰게 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징벌하시기 위해 아람 왕 하사엘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요아스의 신하들이 역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습니다. 요아스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끝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 3:3).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성실하게 해야 함을 배웁니다.

>>> 기도 제목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소서.

10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가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11 그 달아본 은을 일하
 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
 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12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재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니 13 여호와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
 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14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
 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15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16 속죄제의 은
 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려드라 17
 그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
 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18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
 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
 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19 요아스의 남은 사적
 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 요아
 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21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
 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야마
 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본문 열왕기하 13:1~13 찬송가 314장

>>> 본문 해설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유다를 통치한지 23년 째 되던 해 이스라엘 왕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7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예후는 모든 바알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아합의 후손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송아지를 철저히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남유다로 갈까봐 두려워하였고 자신의 이익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그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였습니다. 특히 여호아하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한 우상숭배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그는 좋은 다윗의 본을 따르지 않고 나쁜 여로보암의 본을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복받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아하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여 그 우상숭배의 죄를 심히 징계하셨습니다.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으로 아버지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16년간 통치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왕의 이름도 요아스인데 그는 남유다의 8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4대나 더 많은 이유는 자주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36년 먼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그의 아버지와 조상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고 우상숭배의 패역한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간중심이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인본주의 신앙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 인본주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주소서.

1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이십삼 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십칠 년간 다스리며 2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놀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4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5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6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7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의 티끌 같이 되게 하고 마병 오십 명과 병거 열 대와 보병 만 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 두지 아니하였더라 8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9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0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삼십칠 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십육 년간 다스리며 11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12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3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본문 열왕기하 13:14~25 찬송가 270장

》》 본문 해설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요아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즉시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요아스 왕은 선지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고난 가운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둥이며,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던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요아스 왕은 앞 일에 대해 심히 두렵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요아스 왕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때 요아스를 긍휼히 여긴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활을 잡으라고 하고 활 잡은 왕의 손에 엘리사 자신의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쪽 창을 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동쪽에 있는 아람을 향하여 활을 쏘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손에 엘리사가 손을 얹은 것은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아스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왕이 동쪽 창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 때 “지금 왕께서 쏜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을 향한 화살이니 명심하고 아람을 아백에서 멸절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움과 절망에 떠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잔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아람군대는 모두 멸절할 수 있다고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못살게 굴었고 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비와 긍휼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 언약을 신실이 지키셨습니다.

》》 기도 제목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옵소서.

¹⁴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¹⁵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¹⁶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¹⁷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벧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¹⁸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¹⁹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어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니이다 그러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²⁰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²¹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²²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²³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²⁴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²⁵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본문 열왕기하 14:1~16 찬송가 337장

>>> 본문 해설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만큼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에돔은 유다에게 압당어리와 같았습니다. 에돔은 유다의 형제 나라였지만 정신적으로 원수지간으로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에돔은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기에 싸워 이기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에돔을 물리쳤습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유다가 에돔과 싸우기 위해서 삼십 만 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돈 백 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십만의 군대를 빌려왔습니다. 이에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아마샤는 돈을 주고 빌려온 사람을 보내면 손해라고 판단했지만 선지자의 책망에 빌려온 사람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샤를 통하여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에돔을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사라지자 아마샤는 변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그는 에돔 우상을 가져다가 숭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에돔이라는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가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시가 없으면 인간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12:7).

>>> 기도 제목

오늘도 나에게 주신 가시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¹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이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²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 이더라 ³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⁴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⁵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⁶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⁷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욥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⁸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⁹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¹⁰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¹¹아마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사가 유다의 벧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¹²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¹³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벧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사백 규빗을 헐고 ¹⁴또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¹⁵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사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¹⁶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본문 열왕기하 14:17~29 찬송가 535장

>>> 본문 해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 십오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마흔한 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한 것을 보셨습니다. 맏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업적에 관하여 간략하게 기록된 본문을 보면 인간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들과는 크게 다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그의 손을 벌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¹⁷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십오 년간을 생존하였더라 ¹⁸ 아마사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¹⁹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²⁰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²¹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 때에 그의 나이가 십육 세라 ²² 아마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²³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십오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사십일 년간 다스렸으며 ²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²⁵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²⁶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놓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²⁷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²⁸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²⁹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본문 열왕기하 15:1~12 찬송가 325장

》》 본문 해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 이십칠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라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를 따라 행했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삼대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들처럼 아사랴가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죄는 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요 유다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그 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여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주께서 무슨 이유인지 아사랴 왕을 치셨습니다. 아사랴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격리된 궁에서 살았습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 삼십팔 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스가랴도 오래 왕노릇하지 못하였습니다. 스가라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을 배반하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를 반역하였습니다. 살룸은 역모를 꾀하여 백성 앞에서 스가랴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사 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대 동안 근신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 기도 제목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¹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이십팔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²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십육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³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⁴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⁵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⁶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⁷아사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⁸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삼십팔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라가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⁹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¹⁰아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¹¹스가라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¹²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사 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본문 열왕기하 15:13~22 찬송가 324장

>>> 본문 해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웃시야 왕 제 삼십구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가장 짧은 기간 왕이 되었습니다. 그 때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처죽했습니다. 므나헴은 살룸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은 반역하여 왕이 되었지만 또 다른 역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후손이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왕이 되면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므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살룸과 답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처죽했습니다. 그는 사방 모든 곳을 공격하였습니다. 답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므나헴은 임산부를 죽일 만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 삼십구 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 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므나헴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는 왕권 욕을 버리지 못하였고 그 욕심이 결국 우상 숭배를 향해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기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고 있지 않아 돌아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¹³ 유다 왕 웃시아 제삼십구년에 아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¹⁴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아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¹⁵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¹⁶ 그 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답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 밴 부녀를 갈랐더라 ¹⁷ 유다 왕 아사랴 제삼십구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십 년간 다스리며 ¹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¹⁹ 앗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²⁰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오십 세겔씩 내게 하여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앗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²¹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²²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본문 열왕기하 15:23~38 찬송가 435장

>>> 본문 해설

유다 왕 아사랴 제오십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두 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브가히야는 아버지 므나헴처럼 친앗수르 정책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는 조상들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권 욕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아사랴의 부관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르앗 사람 선 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베가는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브가히야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스무 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주님은 베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베가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도 전왕의 죄악 된 전철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요담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담이, 아버지 웃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읍과 망대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의 성전의 위 대문을 세울 정도로 열심히 있었지만 결국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산당은 높이고자 하는 마음과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장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탐욕스러운 마음을 끊어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권력이나 돈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교만과 탐욕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²⁵ 유다의 왕 아사랴 제오십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년간 다스리며 ²⁶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²⁷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굽과 아리에를 죽이되 길르앗 사람 오십 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²⁸ 브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²⁹ 유다의 왕 아사랴 제오십이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이십 년간 다스리며 ³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³¹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문과 아벨벳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술과 길르앗과 갈릴랴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옮겼더라 ³² 웃시아의 아들 요담 제이십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³³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³⁴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이년에 유다 왕 웃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³⁵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³⁶ 요담이 그의 아버지 웃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³⁷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³⁸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³⁹ 그 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⁴⁰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앗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본문 열왕기하 16:1~20 찬송가 433장

» 본문 해설

유다 왕 아하스는 '이스라엘 열왕의 길'을 행함으로 본격적인 혼합주의 신앙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장려했습니다(3절). 이처럼 아하스의 죄악이 극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앗수르의 힘을 빌려 상황을 벗어나려 했습니다(7절). 뿐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친 앗수르 정책을 펴는 것이 더 현명하리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진정 의지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보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상에 모든 것을 다 내주었습니다. 훗날 유다는 그토록 의지했던 앗수르의 침공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왕상 18:13). 아하스의 우상숭배는 갈수록 심각해져 갔습니다. 앗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무력화시키자 아하스는 앗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 양식에 마음을 뺏겨 제사장 우리야로 하여금 그대로 만들도록 식양까지 만들어 보냈습니다(10절). 이처럼 아하스는 앗수르 왕이 요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앗수르 왕에게 필요 이상의 충성스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배치한 성전의 성구들도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그 구조를 변경했습니다(14~16절). 무너지는 성전 질서입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께 대한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에 빠지고 결국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설 곳은 없습니다.

» 기도 제목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¹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십칠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²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³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⁴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⁵이 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⁶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⁷아하스가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⁸아하스가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 곳곳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앓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⁹앓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¹⁰아하스 왕이 앓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¹¹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¹²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¹³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¹⁴또 여호와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와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¹⁵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어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¹⁶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¹⁷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¹⁸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앓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와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¹⁹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²⁰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본문 열왕기하 17:1~23 찬송가 290장

» 본문 해설

베가를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된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북쪽 10지파를 떼어 시작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호세아가 왕이 된지 9년째 되던 해에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927~722년까지 205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앗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성읍인 사마리아를 진격하여 왔습니다(3절). 호세아 왕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자 앗수르 왕은 진격하던 것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호세아가 앗수르 왕에게 조공 바치던 것을 중단하고 애굽 왕 소에게 도움을 청하자 이를 눈치 챈 앗수르 왕이 다시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호세아 왕을 옥에 감금하였습니다(4절). 그 후에도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이 계속 저항했으나 3년 후에 끝내 사마리아 성읍까지 점령당하여 멸망하고 맙니다(5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점입니다(7~12절).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지 않았고, 또 여호와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남왕국 유다 땅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상숭배만 큼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다른 왕들보다 조금 나은 자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앗수르 점령 지역의 다른 곳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방인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답습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돌이키는 회개만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 기도 제목

우리의 오랜 죄악을 청산하고 다시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1 유다의 왕 아하스 제십이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구 년간 다스리며 2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3 앗수르의 왕 실만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4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앗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5 앗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 곳을 삼 년간 에워쌌더라 6 호세아 제구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7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9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0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11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위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12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13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중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14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위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15 여호와와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16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1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시라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19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2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꾼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21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예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위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22 이스라엘 자손이 예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23 여호와께서 그의 중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본문 열왕기하 17:24~41 찬송가 80장

>>> 본문 해설

앗수르의 이주정책으로 정복지인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방인들 중 몇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자(25절), 앗수르 왕은 이스라엘 포로 중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27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자 즉시 조치를 취하였는데, 정작 선민 이스라엘은 술한 기적과 구원, 심판을 경험하고도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인격자 하나님이 아니라 선택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선민이라는 지위만은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기 신들도 섬겼습니다(33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자기 자녀들도 자기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스스로 산당도 만들고 제사장도 임의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외해도 그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하나님일 뿐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수호신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도, 그것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경외도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앗수르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풍속을 그대로 잘 지키면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여호와만이 경외와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이전 풍속을 고집하여 자기 신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40~41절).

내 과거의 삶의 방식과 목적과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나의 삶과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게 하소서.

26 앓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27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28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앓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29 앓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 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 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 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30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뱀엘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31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2 바벨론 사람들은 속곳뱃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33 아와 사람들은 납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34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신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5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36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37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38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39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40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41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 42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43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본문 열왕기하 18:1~16 찬송가 94장

>>> 본문 해설

질기고 질긴 우상숭배의 역사가 한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서 단절되었습니다(1절). 믿음의 사람 다윗 이후로 이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당연시했던 산당이 무너졌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도 깨졌습니다(4절). 한때 구원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숭배의 대상이 된 모세의 놋뱀도 과감하게 부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통과 관행과 풍습의 이름으로 자행되던 악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요시아와 마찬가지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전례 없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은 왕 히스기야에게 여호와께서도 늘 동행해주셨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고, 담대하게 앗수르 왕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6~7절). 늘 골칫덩이였던 블레셋마저 히스기야 시대 유다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앗수르의 왕 살만에셀의 포위 공격에 3년 간 버텼지만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9~10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왕과 백성이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멸시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유다 여러 성읍들도 차례로 앗수르에게 점령당하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던 마음을 접고 가장 손쉽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앗수르에게 항복하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기로 하였습니다(14절).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털어 은을 마련했고, 성전의 영광을 상징하는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앗수르 왕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15~16절). 그러는 사이에 그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었고, 하나님을 무기력하고 초라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지금 당하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하소서.

¹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삼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아가 왕이 되니 ²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³히스기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⁴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뿔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⁵히스기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⁶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⁷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⁸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⁹히스기아 왕 제사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칠년에 앗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¹⁰삼 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아 왕의 제육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구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¹¹앗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앗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 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¹²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와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¹³히스기아 왕 제십사년에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¹⁴유다의 왕 히스기아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앗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앗수르 왕이 곧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아에게 내게 한지라 ¹⁵히스기아가 이에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¹⁶또 그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아가 여호와와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대답하지 아니하니

본문 열왕기하 18:17~37 찬송가 543장

>>> 본문 해설

앗수르 왕의 사신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전의를 꺾기 위해 그가 의뢰하는 대상이 얼마나 미덥지 못한지를 지적했습니다(19절). 싸울 계교와 용력이 있다는 말도 입에 붙은 말뿐이라고 폄훼했습니다. 앗수르를 등지고 선택한 애굽은 움켜쥔 손을 찌르는 상한 갈대 지팡이일 뿐이요, 지방 산당에서는 제거되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받는 여호와를 믿을 게 못된다고 했습니다(20~22절). 랍사게는 부실한 군사력과 전투력, 그리고 애굽과의 허약한 동맹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말 이천 마리를 주어도 탈 장수가 없고, 앗수르의 갑옷 하나 건드리지 못할 만큼 유다는 허약했습니다. 애굽도 얼마나 우방이 되어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랍사게는 앗수르가 유다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25절). 이방 나라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기에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고난이 늘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랍사게는 간교한 회유와 협박으로 계층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저항 의지를 꺾으려 했습니다. 행복하면 좋은 땅과 안전을 선물할 것이라고 회유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앗수르의 손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었던 역사를 상기시키며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26~35절).

누구의 말을 따르시렵니까?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아는 체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왜 여호와를 의뢰하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털끝만 치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신뢰하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이런 연약함이 엄연한 현실이라 해도, 늘 굴복해야 하는 현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겐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 기도 제목

침묵의 지혜를 주시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주사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앗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뿔뿔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셸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나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대 이는 입에 붙은 말 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찢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이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겠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앗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이천 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자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 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셸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 아둔졌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앗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행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라 그 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밋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였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셸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열왕기하 19:1~19 찬송가 365장

>>> 본문 해설

앗수르에 의해 여호와 하나님이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와와 전에 들어갔습니다(1절). 이 수치를 하나님도 보고 들으셨을 거라고 확신하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2~4절).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모욕하는 말에 두려워 말라고 위로했습니다(6절).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공허한 말, '입에 붙은 말' (왕하 18:20)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유다의 허약한 군사력에 전혀 기대지 않고, 오로지 '소문'만으로 앗수르 왕을 죽게 하셨습니다(7절). 자기 일도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앗수르 왕은 또 다시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고발했습니다(14절). 앗수르가 숭한 나라들을 이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나라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하고 유다의 하나님만 홀로 만국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18절). 히스기야에게 지금은 어느 시기보다 위태로운 때이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세상의 압박에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맨 처음 일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일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처분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일에 앞서, 일을 하면서, 일을 마치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기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초라해 보일 만큼 힘겨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명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흔들기 위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약속을 붙드십시오.

>>> 기도 제목

세상의 공허한 위협 앞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가
 서 2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섹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 그들이 이사야에
 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4 랍사게가 그의 주 앗수르 왕의 보
 념을 받고 와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
 더이다 하니라 5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6 이
 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와 말씀
 이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
 지 말라 7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
 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8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앗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립나
 로 가서 앗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립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9 앗수
 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
 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10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
 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1 앗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12 내 조상들이 멸하
 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셀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
 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13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14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
 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
 에 퍼 놓고 15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위에 계신 이스
 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니라 주께서 천지
 를 만드셨나이다 16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
 옵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7 여
 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18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
 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
 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
 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들었노라

본문 열왕기하 19:20~37 찬송가 516장

» 본문 해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앓수르 왕의 모든 행적과 말과 심중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까지 다 듣고 보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는 사랑과 긍휼로 반응하시고, 악인들의 교만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응징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해 꾸짖고 비방하고 눈을 높이 뜨고 소리를 높인 앓수르가 그들이 조롱하는 자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 앓수르 왕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군대의 힘을 믿었고, 과거의 화려한 전과를 믿었습니다(23~26절). 하루 아침에 앓수르 군인 185,000명이 죽었습니다(35절). 하나님께서는 앓수르 군대를 물리치시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초라한 병력의 유다 군인이 아니라 여호와와 사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퇴각한 앓수르 왕은 반역의 칼에 맞아 비명횡사합니다. 앓수르 왕은 자신의 운명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은 상상도 못할 일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인생이 추락하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런 자리와 권력을 동경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교만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 때 내 힘과 자원을 나를 세우고 알리고 키우는 데만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시간과 세상의 역사 배후에 계신 단 한 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꼭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살렸습니다.

» 기도 제목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소서.

²⁰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앗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²¹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²²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뻗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²³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²⁴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²⁵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건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²⁶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집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²⁷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²⁸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²⁹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삼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³⁰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³¹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³²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³³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시라 ³⁴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³⁵이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³⁶앗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³⁷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래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본문 열왕기하 20:1~11 찬송가 368장

» 본문 해설

앗수르의 위협이 물러가고 유다는 안전해졌지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1절). 하지만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통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6절). 그것은 앗수르의 손에서(왕하 19장)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 응답이 히스기야의 눈물에 감동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이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에 신실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삼 일 만에) 벌여질 회복과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해 히스기야가 요구한 징표를 주셨습니다(9절). 그림자가 십 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히스기야의 요청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시간의 주인이심을 증명해보이셨습니다(11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말씀으로, 사건으로, 친밀한 관계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른 나이(39세)에 죽을 병에 걸리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니 신변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우상을 먼저 찾았던 아하시야와 달리(왕하 1장),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심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행하려 했던 지나온 자신의 삶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경각 중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대로 두고 떠나야 하는 왕의 비통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가 곧 유다의 구원임을 알았습니다. 왕은 단지 이른 죽음만을 애통해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패망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주 앞에 진실하고 신실했다고 회고하고 자신이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살피는 일입니다.

» 기도 제목

가장 낙담할 만한 순간에도 다른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¹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²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³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⁴이사야가 성을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⁵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⁶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⁷이사야가 이르되 무화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오니라 ⁸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낮게 하시고 삼 일 만에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⁹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¹⁰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¹¹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본문 열왕기하 20:12~21 찬송가 546장

» 본문 해설

영적 긴장을 풀면 교만이 찾아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랑은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바벨론 왕 브로다발라단은 자기를 폐위시켰던 앗수르 왕이 죽자 왕위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앗수르에 반역하고자 했고, 그 일환으로 병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12절). 이미 하나님께 병을 고침 받고 앗수르의 위협에서도 놓여 난 히스기야는 사신들을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창고 안에 있는 보물과 군기고까지 다 보여 주었습니다(13절). 아마도 그들이 자기를 위로하러 왔다는 이유로 경계를 늦춘 것 같습니다. 또한 바벨론과 함께 앗수르에 대항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큰 위협과 위기를 넘긴 기쁨에, 앞으로 닥칠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나라의 내부를 속속들이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주신 원칙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앗수르에 대적하기 위해 유다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과 끝까지 동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리석게 행동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 결과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18절). 그러나 이러한 비극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적어도 자신의 생애에는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큰 위기'를 벗어난 히스기야는 '먼 이상'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완악함 때문에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는 없는지 자신을 살피십시오.

» 기도 제목

세상 풍조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게 하소서.

12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아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지라 13 히스기아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아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14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아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아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15 이 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아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16 이사야가 히스기아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 을 들으소서 17 여호와와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 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9 히스기아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와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20 히스기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1 히스기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본문 열왕기하 21:1~15 찬송가 420장

»» 본문 해설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는 나라와 공동체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왕이 우상숭배에 앞장서는 나라에서 백성이 경건함을 유지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2절).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일월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습니다(3~6절). 백성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했습니다(9절). 믿음의 자손이 보여주는 타락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자녀를 무한정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보다 더욱 타락한 므낫세 왕과 유다 백성은 지금까지 들어 본 적 없는 무서운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심판 예언을 들었습니다(12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초토화될 당시에도 남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아합 가문을 심판하셨던 것과 같은 기준으로 유다의 죄를 달아보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파괴 자체가 아니라 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므낫세를 보고 인간의 악의 깊이를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지고 이방인의 가증한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가는 우리의 실체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빛내야 할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서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은혜를 당연하다 여기고 잘못된 용기를 내어 우상을 숭배하거나 악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 비취 보고, 주님을 멀리하면 은혜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 기도 제목

늘 말씀의 경계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게 하소서.

¹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²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기증한 일을 따라서 ³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혈여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⁴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와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⁵또 여호와와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⁶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진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⁷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⁸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⁹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꿈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¹⁰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¹¹유다 왕 므낫세가 이 기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¹²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¹³내가 사마리아를 켜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얹음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¹⁴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고 겁탈거리가 되리니 ¹⁵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본문 열왕기하 21:16~26 찬송가 524장

» 본문 해설

므낏세의 종교적인 타락은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므낏세는 여러 가지 악을 행하였고,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습니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 넘치도록 악을 행하였습니다. 전승에 의하여 므낏세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쳐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일과 악한 행위는 다 기록에 납습니다. 늘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므낏세를 이어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낏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부모나 선배나 교회전통으로부터 잘못된 유산을 물려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늘 성경의 빛 가운데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잘못된 전통과 유전을 버리고 말씀의 빛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¹⁶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하게 하였더라 ¹⁷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¹⁸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¹⁹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므슬레멧이요 웃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²⁰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²¹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 것들에게 경배하고 ²²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²³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²⁴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²⁵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 되지 아니하였느냐 ²⁶아몬이 웃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의 옷을 찢으니라

본문 열왕기하 22:1~13 찬송가 274장

» 본문 해설

요시아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몬의 악행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요시아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은 물질에 정직하였습니다.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매사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 보수 가운데 발견된 율법책을 사반이 읽었고, 왕은 그 내용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참된 회개와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참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과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받은 진로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큰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소서.

¹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팔 세라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²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³요시야 왕 열여덟째 해에 왕이 므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와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⁴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와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⁵여호와와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와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쉬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⁶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채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⁷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계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⁸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⁹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와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¹⁰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¹¹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¹²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¹³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검비하여 옷을 찢고

본문 열왕기하 22:14~20 찬송가 423장

>>> 본문 해설

요시아 왕은 여선지자 홀다에게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홀다는 요시아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책의 말씀대로 유다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격노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시아가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지만, 유다는 이미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아 왕이 율법의 말씀 앞에 검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가 참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도록 해주신다고 여선지자 홀다를 통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빛 아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¹⁴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불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¹⁵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¹⁶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¹⁷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라 하라 하셨느니라 ¹⁸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¹⁹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²⁰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본문 열왕기하 23:1~20 찬송가 315장

>>> 본문 해설

요시아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 주었습니다. 또한 왕은 단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백성에게 요구하였고, 백성은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및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남창들의 집을 허물고 악한 이방의 종교의 풍습들을 폐하고, 우상 숭배 제사장을 처단하였습니다. 요시아의 신앙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시아 왕이 이런 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중심으로 일하는 제사장들과 우상을 만들어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이방 종교의 생활 풍습에 젖어서 그것을 즐겨왔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요시아 왕은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척결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저항과 반대가 두려워서 마땅히 처단하고 제거해야 하는 잘못된 전통과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사람들의 저항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¹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²이에 왕이 여호와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³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⁴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뽕엘로 가져가게 하고 ⁵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⁶또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뽕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⁷또 여호와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할었으니 그 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회장을 펴는 처소였더라 ⁸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계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할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⁹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¹⁰왕이 또 한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물룩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¹¹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내시 나단엘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¹²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넳사가 여호와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뽕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¹³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든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지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¹⁴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 곳에 채웠더라 ¹⁵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뽕엘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뽕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¹⁶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¹⁷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나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뽕엘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¹⁸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¹⁹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격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뽕엘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²⁰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본문 열왕기하 23:21~30 찬송가 313장

>>> 본문 해설

요시아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었으나 한 달이나 늦었습니다(대하 30:3). 그러나 요시아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시아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리빔과 우상의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감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야 합니다.

요시아의 이런 놀라운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와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므낫세 왕이 여호와를 격노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는 39세의 나이에 므깃도 전투에서 죽어 그 멸망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선지자 홀다의 예언처럼 유다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왕하 22:20).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재앙의 날을 피하여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 기도 제목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하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²¹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²²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²³ 요시아 왕 열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²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 함이라 ²⁵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²⁶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한 그 모든 격노 때문이라 ²⁷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²⁸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²⁹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므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³⁰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본문 열왕기하 23:31~24:7 찬송가 214장

>>> 본문 해설

여호아하스 왕은 요시아의 길을 버리고 자기 조상들이 하던 대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가 친바벨론 정책을 펴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애굽에 의해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은 유다를 속국으로 삼고 여호아하스 대신에 엘리아김을 왕으로 세웠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습니다. 35절에 여호야김은 은과 금을 바로 느고에게 주었고, 이로 인해 백성들도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정치적으로 바로 왕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강대국 밑에서 정치적인 계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현실의 환경을 계산하는 데에만 빠르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환경은 변하고, 우리의 힘도 이내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시 20:7).

>>> 기도 제목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소서.

³¹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삼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루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³²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³³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³⁴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 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³⁵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고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³⁶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³⁷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¹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삼 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²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³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와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몰리치고자 하심이 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⁴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⁵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⁶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⁷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본문 열왕기하 24:8~20 찬송가 549장

>>> 본문 해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국의 모든 보물들을 가져갔고, 여호야킨을 비롯한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을 저버릴 때 우리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킨을 대신하여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꼭두각시에 불과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행하였습니다(렘 38:1~12). 그 결과 그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스스로 멸망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심판이 임하겠습니까? 시편 2편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요한 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8 여호아킨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십팔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
 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9 여호
 아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
 였더라 10 그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11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12 유다의 왕 여호아킨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
 째 해이라 13 그가 여호와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
 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와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
 으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4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
 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
 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15 그가 여호아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
 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16 또 용사 칠천 명과 장인과 대
 장장이 천 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
 으로 사로잡아 가고 17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아킨의 숙부 맛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18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립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19 그가 여호아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20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두 눈을 빼고 낫 사슬로 결박하여

본문 열왕기하 25:1~17 찬송가 322장

» 본문 해설

시드기야는 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을 등졌습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에서 도와줄 군대가 오리라고 믿었지만, 애굽은 퇴각하여 돌아갔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양식이 끊어지고, 군사들은 도주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차 포로 이후에 기회를 주셨지만, 시드기야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과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마지막 3차 포로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귀인들의 모든 집을 불사르고 비천한 자들만 남겨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이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서 발견됩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두 눈이 뽑히고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영적인 비참과 고통을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 늘 머물러야 합니다.

» 기도 제목

회개하지 않는 강박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소서.

¹시드기야 제구년 열째 달 십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잔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²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십일년까지 포위되었더라 ³그 해 넷째 달 구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⁴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⁵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⁶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립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⁷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낫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⁸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열아홉째 해 오월 칠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⁹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¹⁰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¹¹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¹²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 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¹³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¹⁴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¹⁵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¹⁶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¹⁷그 한 기둥은 높이가 열여덟 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세 규빗이요 그 머리에 돌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본문 열왕기하 25:18~30 찬송가 298장

》》 본문 해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시드기야를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달리야를 총독으로 세우고 유다를 관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섬기면 평안할 것이라고 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족 가운데 이스마엘이란 사람이 부하 열 명을 거느리고 그달리야를 쳐 죽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백성과 군대장관들이 바벨론 왕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출애굽 한 민족인데,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종의 자리로, 비천한 자리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 왕은 사로잡혀 있던 유다의 왕 여호야킨을 옥에서 놓으며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모든 속국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바벨론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모든 쓸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갑자기 포로인 유다 왕을 이렇게 선대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가 다시 존귀하게 되고,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 기도 제목

징계를 받는 중이라도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²⁸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아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²⁹ 또 성 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 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 중에서 만난 바 백성 육십 명이라 ³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립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³¹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립나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³²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시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³³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렛의 아들 스라아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아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³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³⁵ 칠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열 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처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³⁶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³⁷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 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락이 즉위한 원년 십이월 그 달 이십칠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킨을 옥에서 내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³⁸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³⁹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⁴⁰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본문 마태복음 1:1~17 찬송가 528장

>>> 본문 해설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야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고, 또 사탄의 성문을 차지하여 사탄을 이기게 될 것을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후손들(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후손(씨)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약속한 메시야는 아브라함의 후손(씨)로 오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약속한 메시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를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섯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본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는 믿음의 여인들을 기록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지만, 그것은 계대후손법에 따라 의로운 행동임을 성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룻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남성과 여성,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나 같은 이방 죄인을 복음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¹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²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³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램을 낳고 ⁴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⁵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⁶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⁷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⁸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아를 낳고 ⁹웃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¹⁰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¹¹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¹²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¹³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¹⁴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¹⁵엘리웃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¹⁶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¹⁷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본문 마태복음 1:18~25 찬송가 108장

»» 본문 해설

죽보를 통해(마 1:1~17)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탄생을 준비시킨 마태는 이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23절)이고, '예수' (21절)이십니다. 첫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로써,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는 예언의 성취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둘째,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로써,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시 130:8)는 약속의 성취로 우리 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위의 두 가지 이름의 뜻은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의 백성에게 역사해 오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몸소 임하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신의 친 백성 삼으신 아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쁘신 뜻, 기쁘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방법이 아닌 사람의 출생과정을 통해서 오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즉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되는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거 전에 아이가 생긴 것은 자칫 마리아에게 심각한 부정과 치욕을 수반하는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주관하셨습니다(눅 1:26~38). 당시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와 약혼 관계를 파기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그의 꿈속에 개입하셔서 그를 '다윗의 자손' (20절)이라 명하시며, 그의 혈통에서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을 자가 태어날 것과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며, 출산 때까지 동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25절).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순종한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역사 속에 동참하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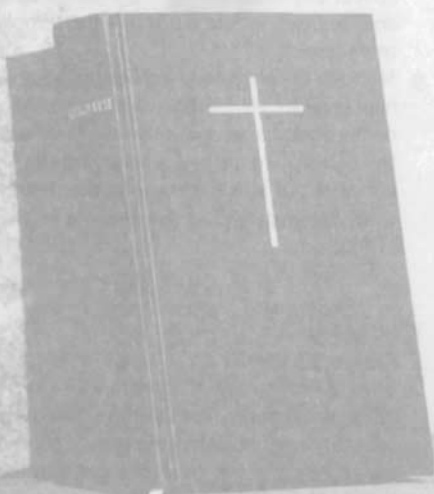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공부

영어본문말씀

7월 1일 금요일

2 Kings 11:13~21

- 13 When Athaliah heard the noise made by the guards and the people, she went to the people at the temple of the LORD.
- 14 She looked and there was the king, standing by the pillar, as the custom was. The officers and the trumpeters were beside the king, and all the people of the land were rejoicing and blowing trumpets. Then Athaliah tore her robes and called out, "Treason! Treason!"
- 15 Jehoiada the priest ordered the commanders of units of a hundred, who were in charge of the troops: "Bring her out between the ranks and put to the sword anyone who follows her." For the priest had said, "She must not be put to death in the temple of the LORD."
- 16 So they seized her as she reached the place where the horses enter the palace grounds, and there she was put to death.
- 17 Jehoiada then made a covenant between the LORD and the king and people that they would be the LORD's people. He also made a covenant between the king and the people.
- 18 All the people of the land went to the temple of Baal and tore it down. They smashed the altars and idols to pieces and killed Mattan the priest of Baal in front of the altars. Then Jehoiada the priest posted guards at the temple of the LORD.
- 19 He took with him the commanders of hundreds, the Carites, the guards and all the people of the land, and together they brought the king down from the temple of the LORD and went into the palace, entering by way of the gate of the guards. The king then took his place on the royal throne,
- 20 and all the people of the land rejoiced. And the city was quiet, because Athaliah had been slain with the sword at the palace.
- 21 Joash was seven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7월 2일 토요일

2 Kings 12:1~9

- 1 In the seventh year of Jehu, Joash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forty years. His mother's name was Zibiah; she was from Beersheba.
- 2 Joash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ll the years Jehoiada the priest instructed him.
- 3 The high places, however, were not removed; the people continued to offer sacrifices and burn incense there.
- 4 Joash said to the priests, "Collect all the money that is brought as sacred offerings to the temple of the LORD -the money collected in the census, the money received from personal vows and the money brought voluntarily to the temple.
- 5 Let every priest receive the money from one of the treasurers, and let it be used to repair whatever damage is found in the temple."
- 6 But by the twenty-third year of King Joash the priests still had not repaired the temple.
- 7 Therefore King Joash summoned Jehoiada the priest and the other priests and asked them, "Why aren't you repairing the damage done to the temple? Take no more money from your treasurers, but hand it over for repairing the temple."
- 8 The priests agreed that they would not collect any more money from the people and that they would not repair the temple themselves.
- 9 Jehoiada the priest took a chest and bored a hole in its lid. He placed it beside the altar, on the right side as one enters the temple of the LORD. The priests who guarded the entrance put into the chest all the money that was brought to the temple of the LORD.

7월 3일 주일

2 Kings 12:10~21

- 10 Whenever they saw that there was a large amount of money in the chest, the royal secretary and the high priest came, counted the money that had been brought into the temple of the LORD and put it into bags.

- 11 When the amount had been determined, they gave the money to the men appointed to supervise the work on the temple. With it they paid those who worked on the temple of the LORD -the carpenters and builders,
- 12 the masons and stonecutters. They purchased timber and dressed stone for the repair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met all the other expenses of restoring the temple.
- 13 The money brought into the temple was not spent for making silver basins, wick trimmers, sprinkling bowls, trumpets or any other articles of gold or silver for the temple of the LORD;
- 14 it was paid to the workmen, who used it to repair the temple.
- 15 They did not require an accounting from those to whom they gave the money to pay the workers, because they acted with complete honesty.
- 16 The money from the guilt offerings and sin offerings was not brought into the temple of the LORD; it belonged to the priests.
- 17 About this time Hazael king of Aram went up and attacked Gath and captured it. Then he turned to attack Jerusalem.
- 18 But Joash king of Judah took all the sacred objects dedicated by his fathers--Jehoshaphat, Jehoram and Ahaziah, the kings of Judah--and the gifts he himself had dedicated and all the gold found in the treasuries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of the royal palace, and he sent them to Hazael king of Aram, who then withdrew from Jerusalem.
- 19 As for the other events of the reign of Joash, and all he di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Judah?
- 20 His officials conspired against him and assassinated him at Beth Millo, on the road down to Silla.
- 21 The officials who murdered him were Jozabad son of Shimeath and Jehozabad son of Shomer. He died and was buried with his fathers in the City of David. And Amaziah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7월 4일 월요일

2 Kings 13:1~13

- 1 In the twenty-third year of Joash son of Ahaziah king of Judah, Jehoahaz son of Jehu became king of Israel in Samaria, and he reigned seventeen years.
- 2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by following the sins of Jeroboam son of Nebat, which he had caused Israel to commit, and he did not turn away from them.
- 3 So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Israel, and for a long time he kept them under the power of Hazael king of Aram and Ben-Hadad his son.
- 4 Then Jehoahaz sought the LORD's favor, and the LORD listened to him, for he saw how severely the king of Aram was oppressing Israel.
- 5 The LORD provided a deliverer for Israel, and they escaped from the power of Aram. So the Israelites lived in their own homes as they had before.
- 6 But they did not turn away from the sins of the house of Jeroboam, which he had caused Israel to commit; they continued in them. Also, the Asherah pole remained standing in Samaria.
- 7 Nothing had been left of the army of Jehoahaz except fifty horsemen, ten chariots and ten thousand foot soldiers, for the king of Aram had destroyed the rest and made them like the dust at threshing time.
- 8 As for the other events of the reign of Jehoahaz, all he did and his achievements,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Israel?
- 9 Jehoahaz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in Samaria. And Jehoash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 10 In the thirty-seventh year of Joash king of Judah, Jehoash son of Jehoahaz became king of Israel in Samaria, and he reigned sixteen years.
- 11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nd did not turn away from any of the sins of Jeroboam son of Nebat, which he had caused Israel to commit; he continued in them.
- 12 As for the other events of the reign of

Jehoash, all he did and his achievements, including his war against Amaziah king of Judah,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Israel?

- 13 Jehoash rested with his fathers, and Jeroboam succeeded him on the throne. Jehoash was buried in Samaria with the kings of Israel.

7월 5일 화요일

2 Kings 13:14~25

- 14 Now Elisha was suffering from the illness from which he died. Jehoash king of Israel went down to see him and wept over him. "My father! My father!" he cried. "The chariots and horsemen of Israel!"
- 15 Elisha said, "Get a bow and some arrows," and he did so.
- 16 "Take the bow in your hands," he said to the king of Israel. When he had taken it, Elisha put his hands on the king's hands.
- 17 "Open the east window," he said, and he opened it. "Shoot!" Elisha said, and he shot. "The LORD's arrow of victory, the arrow of victory over Aram!" Elisha declared. "You will completely destroy the Arameans at Aphek."
- 18 Then he said, "Take the arrows," and the king took them. Elisha told him, "Strike the ground." He struck it three times and stopped.
- 19 The man of God was angry with him and said, "You should have struck the ground five or six times; then you would have defeated Aram and completely destroyed it. But now you will defeat it only three times."
- 20 Elisha died and was buried. Now Moabite raiders used to enter the country every spring.
- 21 Once while some Israelites were burying a man, suddenly they saw a band of raiders; so they threw the man's body into Elisha's tomb. When the body touched Elisha's bones, the man came to life and stood up on his feet.
- 22 Hazael king of Aram oppressed Israel throughout the reign of Jehoahaz.

- 23 But the LORD was gracious to them and had compassion and showed concern for them because of his covenan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To this day he has been unwilling to destroy them or banish them from his presence.
- 24 Hazael king of Aram died, and Ben-Hadad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 25 Then Jehoash son of Jehoahaz recaptured from Ben-Hadad son of Hazael the towns he had taken in battle from his father Jehoahaz. Three times Jehoash defeated him, and so he recovered the Israelite towns.

7월 6일 수요일

2 Kings 14:1~16

- 1 In the second year of Jehoash son of Jehoahaz king of Israel, Amaziah son of Joash king of Judah began to reign.
- 2 He was twenty-fiv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twenty-nine years. His mother's name was Jehoaddin; she was from Jerusalem.
- 3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but not as his father David had done. In everything he followed the example of his father Joash.
- 4 The high places, however, were not removed; the people continued to offer sacrifices and burn incense there.
- 5 After the kingdom was firmly in his grasp, he executed the officials who had murdered his father the king.
- 6 Yet he did not put the sons of the assassins to death, in accordance with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where the LORD commanded: "Fathers shall not be put to death for their children, nor children put to death for their fathers; each is to die for his own sins."
- 7 He was the one who defeated ten thousand Edomites in the Valley of Salt and captured Sela in battle, calling it Joktheel, the name it has to this day.
- 8 Then Amaziah sent messengers to Jehoash son of Jehoahaz, the son of Jehu, king of Israel, with the challenge: "Come, meet me face to face."

- 9 But Jehoash king of Israel replied to Amaziah king of Judah: "A thistle in Lebanon sent a message to a cedar in Lebanon, 'Give your daughter to my son in marriage.' Then a wild beast in Lebanon came along and trampled the thistle underfoot.
- 10 You have indeed defeated Edom and now you are arrogant. Glory in your victory, but stay at home! Why ask for trouble and cause your own downfall and that of Judah also?"
- 11 Amaziah, however, would not listen, so Jehoash king of Israel attacked. He and Amaziah king of Judah faced each other at Beth Shemesh in Judah.
- 12 Judah was routed by Israel, and every man fled to his home.
- 13 Jehoash king of Israel captured Amaziah king of Judah, the son of Joash, the son of Ahaziah, at Beth Shemesh. Then Jehoash went to Jerusalem and broke down the wall of Jerusalem from the Ephraim Gate to the Corner Gate--a section about six hundred feet long.
- 14 He took all the gold and silver and all the articles found in the temple of the LORD and in the treasuries of the royal palace. He also took hostages and returned to Samaria.
- 15 As for the other events of the reign of Jehoash, what he did and his achievements, including his war against Amaziah king of Judah,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Israel?
- 16 Jehoash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in Samaria with the kings of Israel. And Jeroboam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 annals of the kings of Judah?
- 19 They conspired against him in Jerusalem, and he fled to Lachish, but they sent men after him to Lachish and killed him there.
- 20 He was brought back by horse and was buried in Jerusalem with his fathers, in the City of David.
- 21 Then all the people of Judah took Azariah, who was sixteen years old, and made him king in place of his father Amaziah.
- 22 He was the one who rebuilt Elath and restored it to Judah after Amaziah rested with his fathers.
- 23 In the fifteenth year of Amaziah son of Joash king of Judah, Jeroboam son of Jehoash king of Israel became king in Samaria, and he reigned forty-one years.
- 24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nd did not turn away from any of the sins of Jeroboam son of Nebat, which he had caused Israel to commit.
- 25 He was the one who restored the boundaries of Israel from Lebo Hamath to the Sea of the Arabah, in accordance with the word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spoken through his servant Jonah son of Amittai, the prophet from Gath Hopher.
- 26 The LORD had seen how bitterly everyone in Israel, whether slave or free, was suffering; there was no one to help them.
- 27 And since the LORD had not said he would blot out the name of Israel from under heaven, he saved them by the hand of Jeroboam son of Jehoash.
- 28 As for the other events of Jeroboam's reign, all he did, and his military achievements, including how he recovered for Israel both Damascus and Hamath, which had belonged to Yaudi,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Israel?
- 29 Jeroboam rested with his fathers, the kings of Israel. And Zechariah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7월 7일 목요일

2 Kings 14:17~29

- 17 Amaziah son of Joash king of Judah lived for fifteen years after the death of Jehoash son of Jehoahaz king of Israel.
- 18 As for the other events of Amaziah's reign,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7월 8일 금요일

2 Kings 15:1~12

- 1 In the twenty-seventh year of Jeroboam king of Israel, Azariah son of Amaziah king of Judah began to reign.
- 2 He was sixteen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fifty-two years. His mother's name was Jecoliah; she was from Jerusalem.
- 3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just as his father Amaziah had done.
- 4 The high places, however, were not removed; the people continued to offer sacrifices and burn incense there.
- 5 The LORD afflicted the king with leprosy until the day he died, and he lived in a separate house. Jotham the king's son had charge of the palace and governed the people of the land.
- 6 As for the other events of Azariah's reign, and all he di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Judah?
- 7 Azariah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near them in the City of David. And Jotham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 8 In the thirty-eighth year of Azariah king of Judah, Zechariah son of Jeroboam became king of Israel in Samaria, and he reigned six months.
- 9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s his fathers had done. He did not turn away from the sins of Jeroboam son of Nebat, which he had caused Israel to commit.
- 10 Shallum son of Jabesh conspired against Zechariah. He attacked him in front of the people, assassinated him and succeeded him as king.
- 11 The other events of Zechariah's reign are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Israel.
- 12 So the word of the LORD spoken to Jehu was fulfilled: "Your descendants will sit on the throne of Israel to the fourth generation."

7월 9일 토요일

2 Kings 15:13~22

- 13 Shallum son of Jabesh became king in the thirty-ninth year of Uzziah king of Judah, and he reigned in Samaria one month.
- 14 Then Menahem son of Gadi went from Tirzah up to Samaria. He attacked Shallum son of Jabesh in Samaria, assassinated him and succeeded him as king.
- 15 The other events of Shallum's reign, and the conspiracy he led, are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Israel.
- 16 At that time Menahem, starting out from Tirzah, attacked Tiphseh and everyone in the city and its vicinity, because they refused to open their gates. He sacked Tiphseh and ripped open all the pregnant women.
- 17 In the thirty-ninth year of Azariah king of Judah, Menahem son of Gadi became king of Israel, and he reigned in Samaria ten years.
- 18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During his entire reign he did not turn away from the sins of Jeroboam son of Nebat, which he had caused Israel to commit.
- 19 Then Pul king of Assyria invaded the land, and Menahem gave him a thousand talents of silver to gain his support and strengthen his own hold on the kingdom.
- 20 Menahem exacted this money from Israel. Every wealthy man had to contribute fifty shekels of silver to be given to the king of Assyria. So the king of Assyria withdrew and stayed in the land no longer.
- 21 As for the other events of Menahem's reign, and all he di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Israel?
- 22 Menahem rested with his fathers. And Pekahiah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7월 10일 주일

2 Kings 15:23~38

23 In the fiftieth year of Azariah king of Judah, Pekahiah son of Menahem became king of Israel in Samaria, and he reigned two years.

24 Pekahiah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He did not turn away from the sins of Jeroboam son of Nebat, which he had caused Israel to commit.

25 One of his chief officers, Pekah son of Remaliah, conspired against him. Taking fifty men of Gilead with him, he assassinated Pekahiah, along with Argob and Arieah, in the citadel of the royal palace at Samaria. So Pekah killed Pekahiah and succeeded him as king.

26 The other events of Pekahiah's reign, and all he did, are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Israel.

27 In the fifty-second year of Azariah king of Judah, Pekah son of Remaliah became king of Israel in Samaria, and he reigned twenty years.

28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He did not turn away from the sins of Jeroboam son of Nebat, which he had caused Israel to commit.

29 In the time of Pekah king of Israel, Tiglath-Pileser king of Assyria came and took Ijon, Abel Beth Maacah, Janoah, Kedesh and Hazor. He took Gilead and Galilee, including all the land of Naphtali, and deported the people to Assyria.

30 Then Hoshea son of Elah conspired against Pekah son of Remaliah. He attacked and assassinated him, and then succeeded him as king in the twentieth year of Jotham son of Uzziah.

31 As for the other events of Pekah's reign, and all he di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Israel?

32 In the second year of Pekah son of Remaliah king of Israel, Jotham son of Uzziah king of Judah began to reign.

33 He was twenty-fiv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sixteen years. His mother's name was Jerusha daughter of Zadok.

34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just as his father Uzziah had done.

35 The high places, however, were not removed; the people continued to offer sacrifices and burn incense there. Jotham rebuilt the Upper Gate of the temple of the LORD.

36 As for the other events of Jotham's reign, and what he di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Judah?

37 (In those days the LORD began to send Rezin king of Aram and Pekah son of Remaliah against Judah.)

38 Jotham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with them in the City of David, the city of his father. And Ahaz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7월 11일 월요일

2 Kings 16:1~20

1 In the seventeenth year of Pekah son of Remaliah, Ahaz son of Jotham king of Judah began to reign.

2 Ahaz was twenty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sixteen years. Unlike David his father, he did not do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his God.

3 He walked in the ways of the kings of Israel and even sacrificed his son in the fire, following the detestable ways of the nations the LORD had driven out before the Israelites.

4 He offered sacrifices and burned incense at the high places, on the hilltops and under every spreading tree.

5 Then Rezin king of Aram and Pekah son of Remaliah king of Israel marched up to fight against Jerusalem and besieged Ahaz, but they could not overpower him.

6 At that time, Rezin king of Aram recovered Elath for Aram by driving out the men of Judah. Edomites then moved into Elath and have lived there to this day.

7 Ahaz sent messengers to say to Tiglath-Pileser king of Assyria, "I am your servant and vassal. Come up and save me out of the hand of the king of Aram and of the king of Israel, who are attacking me."

- 8 And Ahaz took the silver and gold found in the temple of the LORD and in the treasuries of the royal palace and sent it as a gift to the king of Assyria.
- 9 The king of Assyria complied by attacking Damascus and capturing it. He deported its inhabitants to Kir and put Rezin to death.
- 10 Then King Ahaz went to Damascus to meet Tiglath-Pileser king of Assyria. He saw an altar in Damascus and sent to Uriah the priest a sketch of the altar, with detailed plans for its construction.
- 11 So Uriah the priest built an altar in accordance with all the plans that King Ahaz had sent from Damascus and finished it before King Ahaz returned.
- 12 When the king came back from Damascus and saw the altar, he approached it and presented offerings on it.
- 13 He offered up his burnt offering and grain offering, poured out his drink offering, and sprinkled the blood of his fellowship offerings on the altar.
- 14 The bronze altar that stood before the LORD he brought from the front of the temple--from between the new altar and the temple of the LORD --and put it on the north side of the new altar.
- 15 King Ahaz then gave these orders to Uriah the priest: "On the large new altar, offer the morning burnt offering and the evening grain offering, the king's burnt offering and his grain offering, and the burnt offering of all the people of the land, and their grain offering and their drink offering. Sprinkle on the altar all the blood of the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But I will use the bronze altar for seeking guidance."
- 16 And Uriah the priest did just as King Ahaz had ordered.
- 17 King Ahaz took away the side panels and removed the basins from the movable stands. He removed the Sea from the bronze bulls that supported it and set it on a stone base.
- 18 He took away the Sabbath canopy that had been built at the temple and removed the royal entryway outside the temple of the LORD, in deference to the king of Assyria.

19 As for the other events of the reign of Ahaz, and what he di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Judah?

20 Ahaz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with them in the City of David. And Hezekiah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7월 12일 화요일

2 Kings 17:1~23

- 1 In the twelfth year of Ahaz king of Judah, Hoshea son of Elah became king of Israel in Samaria, and he reigned nine years.
- 2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but not like the kings of Israel who preceded him.
- 3 Shalmaneser king of Assyria came up to attack Hoshea, who had been Shalmaneser's vassal and had paid him tribute.
- 4 But the king of Assyria discovered that Hoshea was a traitor, for he had sent envoys to So king of Egypt, and he no longer paid tribute to the king of Assyria, as he had done year by year. Therefore Shalmaneser seized him and put him in prison.
- 5 The king of Assyria invaded the entire land, marched against Samaria and laid siege to it for three years.
- 6 In the ninth year of Hoshea, the king of Assyria captured Samaria and deported the Israelites to Assyria. He settled them in Halah, in Gozan on the Habor River and in the towns of the Medes.
- 7 All this took place because the Israelites had sinned against the LORD their God, who had brought them up out of Egypt from under the power of Pharaoh king of Egypt. They worshiped other gods
- 8 and followed the practices of the nations the LORD had driven out before them, as well as the practices that the kings of Israel had introduced.
- 9 The Israelites secretly did things against the LORD their God that were not right. From watchtower to fortified city they built themselves high places in all their towns.
- 10 They set up sacred stones and Asherah poles on every high hill and under every spreading tree.

11 At every high place they burned incense, as the nations whom the LORD had driven out before them had done. They did wicked things that provoked the LORD to anger.

12 They worshiped idols, though the LORD had said, "You shall not do this."

13 The LORD warned Israel and Judah through all his prophets and seers: "Turn from your evil ways. Observe my commands and decrees, in accordance with the entire Law that I commanded your fathers to obey and that I delivered to you through my servants the prophets."

14 But they would not listen and were as stiff-necked as their fathers, who did not trust in the LORD their God.

15 They rejected his decrees and the covenant he had made with their fathers and the warnings he had given them. They followed worthless idols and themselves became worthless. They imitated the nations around them although the LORD had ordered them, "Do not do as they do," and they did the things the LORD had forbidden them to do.

16 They forsook all the commands of the LORD their God and made for themselves two idols cast in the shape of calves, and an Asherah pole. They bowed down to all the starry hosts, and they worshiped Baal.

17 They sacrificed their sons and daughters in the fire. They practiced divination and sorcery and sold themselves to do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provoking him to anger.

18 So the LORD was very angry with Israel and removed them from his presence. Only the tribe of Judah was left,

19 and even Judah did not keep the commands of the LORD their God. They followed the practices Israel had introduced.

20 Therefore the LORD rejected all the people of Israel; he afflicted them and gave them into the hands of plunderers, until he thrust them from his presence.

21 When he tore Israel away from the house of David, they made Jeroboam son of Nebat their king. Jeroboam enticed Israel away

from following the LORD and caused them to commit a great sin.

22 The Israelites persisted in all the sins of Jeroboam and did not turn away from them until the LORD removed them from his presence, as he had warned through all his servants the prophets. So the people of Israel were taken from their homeland into exile in Assyria, and they are still there.

7월 13일 수요일

2 Kings 17:24~41

24 The king of Assyria brought people from Babylon, Cuthah, Avva, Hamath and Sepharvaim and settled them in the towns of Samaria to replace the Israelites. They took over Samaria and lived in its towns.

25 When they first lived there, they did not worship the LORD; so he sent lions among them and they killed some of the people.

26 It was reported to the king of Assyria: "The people you deported and resettled in the towns of Samaria do not know what the god of that country requires. He has sent lions among them, which are killing them off, because the people do not know what he requires."

27 Then the king of Assyria gave this order: "Have one of the priests you took captive from Samaria go back to live there and teach the people what the god of the land requires."

28 So one of the priests who had been exiled from Samaria came to live in Bethel and taught them how to worship the LORD.

29 Nevertheless, each national group made its own gods in the several towns where they settled, and set them up in the shrines the people of Samaria had made at the high places.

30 The men from Babylon made Succoth Benoth, the men from Cuthah made Nergal, and the men from Hamath made Ashima;

31 the Avvites made Nibhaz and Tartak, and the Sepharvites burned their children in the fire as sacrifices to Adramelech and Anammelech, the gods of Sepharvaim.

32 They worshiped the LORD, but they also

- appointed all sorts of their own people to officiate for them as priests in the shrines at the high places.
- 33 They worshiped the LORD, but they also served their own gods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of the nations from which they had been brought.
- 34 To this day they persist in their former practices. They neither worship the LORD nor adhere to the decrees and ordinances, the laws and commands that the LORD gave the descendants of Jacob, whom he named Israel.
- 35 When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the Israelites, he commanded them: "Do not worship any other gods or bow down to them, serve them or sacrifice to them.
- 36 But the LORD,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with mighty power and outstretched arm, is the one you must worship. To him you shall bow down and to him offer sacrifices.
- 37 You must always be careful to keep the decrees and ordinances, the laws and commands he wrote for you. Do not worship other gods.
- 38 Do not forget the covenant I have made with you, and do not worship other gods.
- 39 Rather, worship the LORD your God; it is he who will deliver you from the hand of all your enemies."
- 40 They would not listen, however, but persisted in their former practices.
- 41 Even while these people were worshiping the LORD, they were serving their idols. To this day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continue to do as their fathers did.
- LORD, just as his father David had done.
- 4 He removed the high places, smashed the sacred stones and cut down the Asherah poles. He broke into pieces the bronze snake Moses had made, for up to that time the Israelites had been burning incense to it. (It was called Nehushtan.)
- 5 Hezekiah trusted in the LORD, the God of Israel. There was no one like him among all the kings of Judah, either before him or after him.
- 6 He held fast to the LORD and did not cease to follow him; he kept the commands the LORD had given Moses.
- 7 And the LORD was with him; he was successful in whatever he undertook. He rebelled against the king of Assyria and did not serve him.
- 8 From watchtower to fortified city, he defeated the Philistines, as far as Gaza and its territory.
- 9 In King Hezekiah's fourth year, which was the seventh year of Hoshea son of Elah king of Israel, Shalmaneser king of Assyria marched against Samaria and laid siege to it.
- 10 At the end of three years the Assyrians took it. So Samaria was captured in Hezekiah's sixth year, which was the ninth year of Hoshea king of Israel.
- 11 The king of Assyria deported Israel to Assyria and settled them in Halah, in Gozan on the Habor River and in towns of the Medes.
- 12 This happened because they had not obeyed the LORD their God, but had violated his covenant--all that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commanded. They neither listened to the commands nor carried them out.
- 13 In the fourteenth year of King Hezekiah's reign, Sennacherib king of Assyria attacked all the fortified cities of Judah and captured them.
- 14 So Hezekiah king of Judah sent this message to the king of Assyria at Lachish: "I have done wrong. Withdraw from me, and I will pay whatever you demand of me." The king of Assyria exacted from Hezekiah king

7월 14일 목요일

2 Kings 18:1~16

- 1 In the third year of Hoshea son of Elah king of Israel, Hezekiah son of Ahaz king of Judah began to reign.
- 2 He was twenty-fiv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twenty-nine years. His mother's name was Abijah daughter of Zechariah.
- 3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of Judah three hundred talents of silver and thirty talents of gold.

15 So Hezekiah gave him all the silver that was found in the temple of the LORD and in the treasuries of the royal palace.

16 At this time Hezekiah king of Judah stripped off the gold with which he had covered the doors and doorposts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gave it to the king of Assyria.

7월 15일 금요일

2 Kings 18:17~37

17 The king of Assyria sent his supreme commander, his chief officer and his field commander with a large army, from Lachish to King Hezekiah at Jerusalem. They came up to Jerusalem and stopped at the aqueduct of the Upper Pool, on the road to the Washerman's Field.

18 They called for the king, and Eliakim son of Hilkiah the palace administrator, Shebna the secretary, and Joah son of Asaph the recorder went out to them.

19 The field commander said to them, "Tell Hezekiah: " 'This is what the great king, the king of Assyria, says: On what are you basing this confidence of yours?

20 You say you have strategy and military strength--but you speak only empty words. On whom are you depending, that you rebel against me?

21 Look now, you are depending on Egypt, that splintered reed of a staff, which pierces a man's hand and wounds him if he leans on it! Such is Pharaoh king of Egypt to all who depend on him.

22 And if you say to me, "We are depending on the LORD our God"--isn't he the one whose high places and altars Hezekiah removed, saying to Judah and Jerusalem, "You must worship before this altar in Jerusalem"?

23 " 'Come now, make a bargain with my master, the king of Assyria: I will give you two thousand horses--if you can put riders on them!

24 How can you repulse one officer of the least of my master's officials, even though you

are depending on Egypt for chariots and horsemen?

25 Furthermore, have I come to attack and destroy this place without word from the LORD? The LORD himself told me to march against this country and destroy it."

26 Then Eliakim son of Hilkiah, and Shebna and Joah said to the field commander, "Please speak to your servants in Aramaic, since we understand it. Don't speak to us in Hebrew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on the wall."

27 But the commander replied, "Was it only to your master and you that my master sent me to say these things, and not to the men sitting on the wall--who, like you, will have to eat their own filth and drink their own urine?"

28 Then the commander stood and called out in Hebrew: "Hear the word of the great king, the king of Assyria!

29 This is what the king says: Do not let Hezekiah deceive you. He cannot deliver you from my hand.

30 Do not let Hezekiah persuade you to trust in the LORD when he says, 'The LORD will surely deliver us; this city will not be given into the hand of the king of Assyria.'

31 "Do not listen to Hezekiah. This is what the king of Assyria says: Make peace with me and come out to me. Then every one of you will eat from his own vine and fig tree and drink water from his own cistern,

32 until I come and take you to a land like your own, a land of grain and new wine, a land of bread and vineyards, a land of olive trees and honey. Choose life and not death! "Do not listen to Hezekiah, for he is misleading you when he says, 'The LORD will deliver us.'

33 Has the god of any nation ever delivered his land from the hand of the king of Assyria?

34 Where are the gods of Hamath and Arpad? Where are the gods of Sepharvaim, Hena and Ivvah? Have they rescued Samaria from my hand?

35 Who of all the gods of these countries has been able to save his land from me? How then can the LORD deliver Jerusalem from my hand?"

36 But the people remained silent and said

nothing in reply, because the king had commanded, "Do not answer him."

- 37 Then Eliakim son of Hilkiah the palace administrator, Shebna the secretary and Joah son of Asaph the recorder went to Hezekiah, with their clothes torn, and told him what the field commander had said.

7월 16일 토요일

2 Kings 19:1~19

- 1 When King Hezekiah heard this, he tore his clothes and put on sackcloth and went into the temple of the LORD.
- 2 He sent Eliakim the palace administrator, Shebna the secretary and the leading priests, all wearing sackcloth, to the prophet Isaiah son of Amoz.
- 3 They told him, "This is what Hezekiah says: This day is a day of distress and rebuke and disgrace, as when children come to the point of birth and there is no strength to deliver them.
- 4 It may be that the LORD your God will hear all the words of the field commander, whom his master, the king of Assyria, has sent to ridicule the living God, and that he will rebuke him for the words the LORD your God has heard. Therefore pray for the remnant that still survives."
- 5 When King Hezekiah's officials came to Isaiah,
- 6 Isaiah said to them, "Tell your master, 'This is what the LORD says: Do not be afraid of what you have heard--those words with which the underlings of the king of Assyria have blasphemed me.
- 7 Listen! I am going to put such a spirit in him that when he hears a certain report, he will return to his own country, and there I will have him cut down with the sword.'"
- 8 When the field commander heard that the king of Assyria had left Lachish, he withdrew and found the king fighting against Libnah.
- 9 Now Sennacherib received a report that Tirhakah, the Cushite king of Egypt, was marching out to fight against him. So he again sent messengers to Hezekiah with

this word:

- 10 "Say to Hezekiah king of Judah: Do not let the god you depend on deceive you when he says, 'Jerusalem will not be handed over to the king of Assyria.'
- 11 Surely you have heard what the kings of Assyria have done to all the countries, destroying them completely. And will you be delivered?
- 12 Did the gods of the nations that were destroyed by my forefathers deliver them: the gods of Gozan, Haran, Rezeph and the people of Eden who were in Tel Assar?
- 13 Where is the king of Hamath, the king of Arpad, the king of the city of Sepharvaim, or of Hena or Ivah?"
- 14 Hezekiah received the letter from the messengers and read it. Then he went up to the temple of the LORD and spread it out before the LORD.
- 15 And Hezekiah prayed to the LORD: "O LORD, God of Israel, enthroned between the cherubim, you alone are God over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You have made heaven and earth.
- 16 Give ear, O LORD, and hear; open your eyes, O LORD, and see; listen to the words Sennacherib has sent to insult the living God.
- 17 "It is true, O LORD, that the Assyrian kings have laid waste these nations and their lands.
- 18 They have thrown their gods into the fire and destroyed them, for they were not gods but only wood and stone, fashioned by men's hands.
- 19 Now, O LORD our God, deliver us from his hand, so that all kingdoms on earth may know that you alone, O LORD, are God."

7월 17일 주일

2 Kings 19:20~37

- 20 Then Isaiah son of Amoz sent a message to Hezekiah: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I have heard your prayer concerning Sennacherib king of Assyria.
- 21 This is the word that the LORD has spoken against him: "The Virgin Daughter of Zion

despises you and mocks you. The Daughter of Jerusalem tosses her head as you flee.

22 Who is it you have insulted and blasphemed? Against whom have you raised your voice and lifted your eyes in pride? Against the Holy One of Israel!

23 By your messengers you have heaped insults on the Lord. And you have said, "With my many chariots I have ascended the heights of the mountains, the utmost heights of Lebanon. I have cut down its tallest cedars, the choicest of its pines. I have reached its remotest parts, the finest of its forests.

24 I have dug wells in foreign lands and drunk the water there. With the soles of my feet I have dried up all the streams of Egypt."

25 "Have you not heard? Long ago I ordained it. In days of old I planned it; now I have brought it to pass, that you have turned fortified cities into piles of stone.

26 Their people, drained of power, are dismayed and put to shame. They are like plants in the field, like tender green shoots, like grass sprouting on the roof, scorched before it grows up.

27 "But I know where you stay and when you come and go and how you rage against me.

28 Because you rage against me and your insolence has reached my ears, I will put my hook in your nose and my bit in your mouth, and I will make you return by the way you came.'

29 "This will be the sign for you, O Hezekiah: "This year you will eat what grows by itself, and the second year what springs from that. But in the third year sow and reap, plant vineyards and eat their fruit.

30 Once more a remnant of the house of Judah will take root below and bear fruit above.

31 For out of Jerusalem will come a remnant, and out of Mount Zion a band of survivors.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this.

32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concerning the king of Assyria: "He will not enter this city or shoot an arrow here. He will not come before it with shield or build a

siege ramp against it.

33 By the way that he came he will return; he will not enter this city, declares the LORD.

34 I will defend this city and save it, for my sake and for the sake of David my servant."

35 That night the angel of the LORD went out and put to death a hundred and eighty-five thousand men in the Assyrian camp. When the people got up the next morning--there were all the dead bodies!

36 So Sennacherib king of Assyria broke camp and withdrew. He returned to Nineveh and stayed there.

37 One day, while he was worshiping in the temple of his god Nisroch, his sons Adrammelech and Sharezer cut him down with the sword, and they escaped to the land of Ararat. And Esarhaddon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7월 18일 월요일

2 Kings 20:1~11

1 In those days Hezekiah became ill and was at the point of death. The prophet Isaiah son of Amoz went to him and said, "This is what the LORD says: Put your house in order, because you are going to die; you will not recover."

2 Hezekiah turned his face to the wall and prayed to the LORD,

3 "Remember, O LORD, how I have walked before you faithfully and with wholehearted devotion and have done what is good in your eyes." And Hezekiah wept bitterly.

4 Before Isaiah had left the middle court,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5 "Go back and tell Hezekiah, the leader of my people,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 David, says: I have heard your prayer and seen your tears; I will heal you. On the third day from now you will go up to the temple of the LORD.

6 I will add fifteen years to your life. And I will deliver you and this city from the hand of the king of Assyria. I will defend this city for my sake and for the sake of my servant David.'

7 Then Isaiah said, "Prepare a poultice of figs." They did so and applied it to the boil, and he

recovered.

- 8 Hezekiah had asked Isaiah, "What will be the sign that the LORD will heal me and that I will go up to the temple of the LORD on the third day from now?"
- 9 Isaiah answered, "This is the LORD's sign to you that the LORD will do what he has promised: Shall the shadow go forward ten steps, or shall it go back ten steps?"
- 10 "It is a simple matter for the shadow to go forward ten steps," said Hezekiah. "Rather, have it go back ten steps."
- 11 Then the prophet Isaiah called upon the LORD, and the LORD made the shadow go back the ten steps it had gone down on the stairway of Ahaz.

7월 19일 화요일

2 Kings 20:12~21

- 12 At that time Merodach-Baladan son of Baladan king of Babylon sent Hezekiah letters and a gift, because he had heard of Hezekiah's illness.
- 13 Hezekiah received the messengers and showed them all that was in his storehouses--the silver, the gold, the spices and the fine oil--his armory and everything found among his treasures. There was nothing in his palace or in all his kingdom that Hezekiah did not show them.
- 14 Then Isaiah the prophet went to King Hezekiah and asked, "What did those men say, and where did they come from?" "From a distant land," Hezekiah replied. "They came from Babylon."
- 15 The prophet asked, "What did they see in your palace?" "They saw everything in my palace," Hezekiah said. "There is nothing among my treasures that I did not show them."
- 16 Then Isaiah said to Hezekiah, "Hear the word of the LORD :
- 17 The time will surely come when everything in your palace, and all that your fathers have stored up until this day, will be carried off to Babylon. Nothing will be left, says the LORD.
- 18 And some of your descendants, your own

flesh and blood, that will be born to you, will be taken away, and they will become eunuchs in the palace of the king of Babylon."

- 19 "The word of the LORD you have spoken is good," Hezekiah replied. For he thought, "Will there not be peace and security in my lifetime?"
- 20 As for the other events of Hezekiah's reign, all his achievements and how he made the pool and the tunnel by which he brought water into the city,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Judah?
- 21 Hezekiah rested with his fathers. And Manasseh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7월 20일 수요일

2 Kings 21:1~15

- 1 Manasseh was twelv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fifty-five years. His mother's name was Hephzibah.
- 2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following the detestable practices of the nations the LORD had driven out before the Israelites.
- 3 He rebuilt the high places his father Hezekiah had destroyed; he also erected altars to Baal and made an Asherah pole, as Ahab king of Israel had done. He bowed down to all the starry hosts and worshiped them.
- 4 He built altars in the temple of the LORD, of which the LORD had said, "In Jerusalem I will put my Name."
- 5 In both courts of the temple of the LORD, he built altars to all the starry hosts.
- 6 He sacrificed his own son in the fire, practiced sorcery and divination, and consulted mediums and spiritists. He did much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provoking him to anger.
- 7 He took the carved Asherah pole he had made and put it in the temple, of which the LORD had said to David and to his son Solomon, "In this temple and in Jerusalem, which I have chosen out of all the tribes of Israel, I will put my Name forever.

8 I will not again make the feet of the Israelites wander from the land I gave their forefathers, if only they will be careful to do everything I commanded them and will keep the whole Law that my servant Moses gave them."

9 But the people did not listen. Manasseh led them astray, so that they did more evil than the nations the LORD had destroyed before the Israelites.

10 The LORD said through his servants the prophets:

11 "Manasseh king of Judah has committed these detestable sins. He has done more evil than the Amorites who preceded him and has led Judah into sin with his idols.

12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I am going to bring such disaster on Jerusalem and Judah that the ears of everyone who hears of it will tingle.

13 I will stretch out over Jerusalem the measuring line used against Samaria and the plumb line used against the house of Ahab. I will wipe out Jerusalem as one wipes a dish, wiping it and turning it upside down.

14 I will forsake the remnant of my inheritance and hand them over to their enemies. They will be looted and plundered by all their foes,

15 because they have done evil in my eyes and have provoked me to anger from the day their forefathers came out of Egypt until this day."

7월 21일 목요일

2 Kings 21:16~26

16 Moreover, Manasseh also shed so much innocent blood that he filled Jerusalem from end to end--besides the sin that he had caused Judah to commit, so that they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17 As for the other events of Manasseh's reign, and all he did, including the sin he committe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Judah?

18 Manasseh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in his palace garden, the garden of

Uzza. And Amon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19 Amon was twenty-two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two years. His mother's name was Meshullemeth daughter of Haruz; she was from Jotbah.

20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s his father Manasseh had done.

21 He walked in all the ways of his father; he worshiped the idols his father had worshiped, and bowed down to them.

22 He forsook the LORD, the God of his fathers, and did not walk in the way of the LORD.

23 Amon's officials conspired against him and assassinated the king in his palace.

24 Then the people of the land killed all who had plotted against King Amon, and they made Josiah his son king in his place.

25 As for the other events of Amon's reign, and what he di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Judah?

26 He was buried in his grave in the garden of Uzza. And Josiah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7월 22일 금요일

2 Kings 22:1~13

1 Josiah was eight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thirty-one years. His mother's name was Jedidah daughter of Adaiah; she was from Bozkath.

2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nd walked in all the ways of his father David, not turning aside to the right or to the left.

3 In the eighteenth year of his reign, King Josiah sent the secretary, Shaphan son of Azaliah, the son of Meshullam, to the temple of the LORD. He said:

4 "Go up to Hilkiah the high priest and have him get ready the money that has been brought into the temple of the LORD, which the doorkeepers have collected from the people.

5 Have them entrust it to the men appointed to supervise the work on the temple. And

have these men pay the workers who repair the temple of the LORD -

- 6 the carpenters, the builders and the masons. Also have them purchase timber and dressed stone to repair the temple.
- 7 But they need not account for the money entrusted to them, because they are acting faithfully."
- 8 Hilkiah the high priest said to Shaphan the secretary, "I have found the Book of the Law in the temple of the LORD." He gave it to Shaphan, who read it.
- 9 Then Shaphan the secretary went to the king and reported to him: "Your officials have paid out the money that was in the temple of the LORD and have entrusted it to the workers and supervisors at the temple."
- 10 Then Shaphan the secretary informed the king, "Hilkiah the priest has given me a book." And Shaphan read from it in the presence of the king.
- 11 When the king heard the words of the Book of the Law, he tore his robes.
- 12 He gave these orders to Hilkiah the priest, Ahikam son of Shaphan, Acbor son of Micaiah, Shaphan the secretary and Asaiah the king's attendant:
- 13 "Go and inquire of the LORD for me and for the people and for all Judah about what is written in this book that has been found. Great is the LORD's anger that burns against us because our fathers have not obeyed the words of this book; they have not acted in accordance with all that is written there concerning us."

7월 23일 토요일

2 Kings 22:14~20

- 14 Hilkiah the priest, Ahikam, Acbor, Shaphan and Asaiah went to speak to the prophetess Huldah, who was the wife of Shallum son of Tikvah, the son of Harhas, keeper of the wardrobe. She lived in Jerusalem, in the Second District.
- 15 She said to them,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Tell the man who sent you to me,

16 'This is what the LORD says: I am going to bring disaster on this place and its people, according to everything written in the book the king of Judah has read.

17 Because they have forsaken me and burned incense to other gods and provoked me to anger by all the idols their hands have made, my anger will burn against this place and will not be quenched.'

18 Tell the king of Judah, who sent you to inquire of the LORD,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concerning the words you heard:

19 Because your heart was responsive and you humbled yourself before the LORD when you heard what I have spoken against this place and its people, that they would become accursed and laid waste, and because you tore your robes and wept in my presence, I have heard you, declares the LORD.

20 Therefore I will gather you to your fathers, and you will be buried in peace. Your eyes will not see all the disaster I am going to bring on this place.' " So they took her answer back to the king.

7월 24일 주일

2 Kings 23:1~20

1 Then the king called together all the elders of Judah and Jerusalem.

2 He went up to the temple of the LORD with the men of Judah, the people of Jerusalem, the priests and the prophets--all the people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He read in their hearing all the words of the Book of the Covenant, which had been found in the temple of the LORD.

3 The king stood by the pillar and renewed the covenant in the presence of the LORD -to follow the LORD and keep his commands, regulations and decrees with all his heart and all his soul, thus confirming the words of the covenant written in this book. Then all the people pledged themselves to the covenant.

4 The king ordered Hilkiah the high priest, the priests next in rank and the doorkeepers to

- remove from the temple of the LORD all the articles made for Baal and Asherah and all the starry hosts. He burned them outside Jerusalem in the fields of the Kidron Valley and took the ashes to Bethel.
- 5 He did away with the pagan priests appointed by the kings of Judah to burn incense on the high places of the towns of Judah and on those around Jerusalem--those who burned incense to Baal, to the sun and moon, to the constellations and to all the starry hosts.
- 6 He took the Asherah pole from the temple of the LORD to the Kidron Valley outside Jerusalem and burned it there. He ground it to powder and scattered the dust over the graves of the common people.
- 7 He also tore down the quarters of the male shrine prostitutes, which were in the temple of the LORD and where women did weaving for Asherah.
- 8 Josiah brought all the priests from the towns of Judah and desecrated the high places, from Geba to Beersheba, where the priests had burned incense. He broke down the shrines at the gates--at the entrance to the Gate of Joshua, the city governor, which is on the left of the city gate.
- 9 Although the priests of the high places did not serve at the altar of the LORD in Jerusalem, they ate unleavened bread with their fellow priests.
- 10 He desecrated Topheth, which was in the Valley of Ben Hinnom, so no one could use it to sacrifice his son or daughter in the fire to Molech.
- 11 He removed from the entrance to the temple of the LORD the horses that the kings of Judah had dedicated to the sun. They were in the court near the room of an official named Nathan-Melech. Josiah then burned the chariots dedicated to the sun.
- 12 He pulled down the altars the kings of Judah had erected on the roof near the upper room of Ahaz, and the altars Manasseh had built in the two courts of the temple of the LORD. He removed them from there, smashed them to pieces and threw the rubble into the Kidron Valley.
- 13 The king also desecrated the high places that were east of Jerusalem on the south of the Hill of Corruption--the ones Solomon king of Israel had built for Ashtoreth the vile goddess of the Sidonians, for Chemosh the vile god of Moab, and for Molech the detestable god of the people of Ammon.
- 14 Josiah smashed the sacred stones and cut down the Asherah poles and covered the sites with human bones.
- 15 Even the altar at Bethel, the high place made by Jeroboam son of Nebat, who had caused Israel to sin--even that altar and high place he demolished. He burned the high place and ground it to powder, and burned the Asherah pole also.
- 16 Then Josiah looked around, and when he saw the tombs that were there on the hillside, he had the bones removed from them and burned on the altar to defile it, in accordance with the word of the LORD proclaimed by the man of God who foretold these things.
- 17 The king asked, "What is that tombstone I see?" The men of the city said, "It marks the tomb of the man of God who came from Judah and pronounced against the altar of Bethel the very things you have done to it."
- 18 "Leave it alone," he said. "Don't let anyone disturb his bones." So they spared his bones and those of the prophet who had come from Samaria.
- 19 Just as he had done at Bethel, Josiah removed and defiled all the shrines at the high places that the kings of Israel had built in the towns of Samaria that had provoked the LORD to anger.
- 20 Josiah slaughtered all the priests of those high places on the altars and burned human bones on them. Then he went back to Jerusalem.

7월 25일 월요일

2 Kings 23:21~30

- 21 The king gave this order to all the people: "Celebrate the Passover to the LORD your God, as it is written in this Book of the Covenant."
- 22 Not since the days of the judges who led Israel, nor throughout the days of the kings of Israel and the kings of Judah, had any such Passover been observed.
- 23 But in the eighteenth year of King Josiah, this Passover was celebrated to the LORD in Jerusalem.
- 24 Furthermore, Josiah got rid of the mediums and spiritists, the household gods, the idols and all the other detestable things seen in Judah and Jerusalem. This he did to fulfill the requirements of the law written in the book that Hilkiah the priest had discovered in the temple of the LORD.
- 25 Neither before nor after Josiah was there a king like him who turned to the LORD as he did—with all his heart and with all his soul and with all his strength, in accordance with all the Law of Moses.
- 26 Nevertheless, the LORD did not turn away from the heat of his fierce anger, which burned against Judah because of all that Manasseh had done to provoke him to anger.
- 27 So the LORD said, "I will remove Judah also from my presence as I removed Israel, and I will reject Jerusalem, the city I chose, and this temple, about which I said, 'There shall my Name be.'"
- 28 As for the other events of Josiah's reign, and all he di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Judah?
- 29 While Josiah was king, Pharaoh Neco king of Egypt went up to the Euphrates River to help the king of Assyria. King Josiah marched out to meet him in battle, but Neco faced him and killed him at Megiddo.
- 30 Josiah's servants brought his body in a chariot from Megiddo to Jerusalem and buried him in his own tomb. And the people of the land took Jehoahaz son of Josiah and anointed him and made him king in place of his father.

7월 26일 화요일

2 Kings 23:31~37

- 31 Jehoahaz was twenty-thre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three months. His mother's name was Hamutal daughter of Jeremiah; she was from Libnah.
- 32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just as his fathers had done.
- 33 Pharaoh Neco put him in chains at Riblah in the land of Hamath so that he might not reign in Jerusalem, and he imposed on Judah a levy of a hundred talents of silver and a talent of gold.
- 34 Pharaoh Neco made Eliakim son of Josiah king in place of his father Josiah and changed Eliakim's name to Jehoiakim. But he took Jehoahaz and carried him off to Egypt, and there he died.
- 35 Jehoiakim paid Pharaoh Neco the silver and gold he demanded. In order to do so, he taxed the land and exacted the silver and gold from the people of the land according to their assessments.
- 36 Jehoiakim was twenty-fiv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eleven years. His mother's name was Zebidah daughter of Pedaiah; she was from Rumah.
- 37 And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just as his fathers had done.

2 Kings 24:1~7

- 1 During Jehoiakim's reign,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invaded the land, and Jehoiakim became his vassal for three years. But then he changed his mind and rebelled against Nebuchadnezzar.
- 2 The LORD sent Babylonian, Aramean, Moabite and Ammonite raiders against him. He sent them to destroy Judah, in accordance with the word of the LORD proclaimed by his servants the prophets.
- 3 Surely these things happened to Judah according to the LORD's command, in order to remove them from his presence because of the sins of Manasseh and all he had done, including the shedding of innocent blood.
- 4 For he had filled Jerusalem with innocent

blood, and the LORD was not willing to forgive.

- 5 As for the other events of Jehoiakim's reign, and all he di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Judah?
- 6 Jehoiakim rested with his fathers. And Jehoiachin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 7 The king of Egypt did not march out from his own country again, because the king of Babylon had taken all his territory, from the Wadi of Egypt to the Euphrates River.

7월 27일 수요일

2 Kings 24:8~20

- 8 Jehoiachin was eighteen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three months. His mother's name was Nehushta daughter of Elnathan; she was from Jerusalem.
- 9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just as his father had done.
- 10 At that time the officers of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advanced on Jerusalem and laid siege to it,
- 11 and Nebuchadnezzar himself came up to the city while his officers were besieging it.
- 12 Jehoiachin king of Judah, his mother, his attendants, his nobles and his officials all surrendered to him. In the eighth year of the reign of the king of Babylon, he took Jehoiachin prisoner.
- 13 As the LORD had declared, Nebuchadnezzar removed all the treasures from the temple of the LORD and from the royal palace, and took away all the gold articles that Solomon king of Israel had made for the temple of the LORD.
- 14 He carried into exile all Jerusalem: all the officers and fighting men, and all the craftsmen and artisans--a total of ten thousand. Only the poorest people of the land were left.
- 15 Nebuchadnezzar took Jehoiachin captive to Babylon. He also took from Jerusalem to Babylon the king's mother, his wives, his officials and the leading men of the land.
- 16 The king of Babylon also deported to Babylon the entire force of seven thousand

fighting men, strong and fit for war, and a thousand craftsmen and artisans.

- 17 He made Mattaniah, Jehoiachin's uncle, king in his place and changed his name to Zedekiah.
- 18 Zedekiah was twenty-on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eleven years. His mother's name was Hamutal daughter of Jeremiah; she was from Libnah.
- 19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just as Jehoiakim had done.
- 20 It was because of the LORD's anger that all this happened to Jerusalem and Judah, and in the end he thrust them from his presence. Now Zedekiah rebelled against the king of Babylon.

7월 28일 목요일

2 Kings 25:1~17

- 1 So in the ninth year of Zedekiah's reign, on the tenth day of the tenth month,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marched against Jerusalem with his whole army. He encamped outside the city and built siege works all around it.
- 2 The city was kept under siege until the eleventh year of King Zedekiah.
- 3 By the ninth day of the fourth month the famine in the city had become so severe that there was no food for the people to eat.
- 4 Then the city wall was broken through, and the whole army fled at night through the gate between the two walls near the king's garden, though the Babylonians were surrounding the city. They fled toward the Arabah,
- 5 but the Babylonian army pursued the king and overtook him in the plains of Jericho. All his soldiers were separated from him and scattered,
- 6 and he was captured. He was taken to the king of Babylon at Riblah, where sentence was pronounced on him.
- 7 They killed the sons of Zedekiah before his eyes. Then they put out his eyes, bound him with bronze shackles and took him to Babylon.

- 8 On the seventh day of the fifth month, in the nineteenth year of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Nebuzaradan commander of the imperial guard, an official of the king of Babylon, came to Jerusalem.
- 9 He set fire to the temple of the LORD, the royal palace and all the houses of Jerusalem. Every important building he burned down.
- 10 The whole Babylonian army, under the commander of the imperial guard, broke down the walls around Jerusalem.
- 11 Nebuzaradan the commander of the guard carried into exile the people who remained in the city, along with the rest of the populace and those who had gone over to the king of Babylon.
- 12 But the commander left behind some of the poorest people of the land to work the vineyards and fields.
- 13 The Babylonians broke up the bronze pillars, the movable stands and the bronze Sea that were at the temple of the LORD and they carried the bronze to Babylon.
- 14 They also took away the pots, shovels, wick trimmers, dishes and all the bronze articles used in the temple service.
- 15 The commander of the imperial guard took away the censers and sprinkling bowls--all that were made of pure gold or silver.
- 16 The bronze from the two pillars, the Sea and the movable stands, which Solomon had made for the temple of the LORD, was more than could be weighed.
- 17 Each pillar was twenty-seven feet high. The bronze capital on top of one pillar was four and a half feet high and was decorated with a network and pomegranates of bronze all around. The other pillar, with its network, was similar.

7월 29일 금요일

2 Kings 25:18~30

- 18 The commander of the guard took as prisoners Seraiah the chief priest, Zephaniah the priest next in rank and the three doorkeepers.
- 19 Of those still in the city, he took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fighting men and five royal advisers. He also took the secretary who was chief officer in charge of conscripting the people of the land and sixty of his men who were found in the city.

- 20 Nebuzaradan the commander took them all and brought them to the king of Babylon at Riblah.
- 21 There at Riblah, in the land of Hamath, the king had them executed. So Judah went into captivity, away from her land.
- 22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appointed Gedaliah son of Ahikam, the son of Shaphan, to be over the people he had left behind in Judah.
- 23 When all the army officers and their men heard that the king of Babylon had appointed Gedaliah as governor, they came to Gedaliah at Mizpah--Ishmael son of Nethaniah, Johanan son of Kareah, Seraiah son of Tanhumeth the Netophathite, Jaazaniah the son of the Maacathite, and their men.
- 24 Gedaliah took an oath to reassure them and their men. "Do not be afraid of the Babylonian officials," he said. "Settle down in the land and serve the king of Babylon, and it will go well with you."
- 25 In the seventh month, however, Ishmael son of Nethaniah, the son of Elishama, who was of royal blood, came with ten men and assassinated Gedaliah and also the men of Judah and the Babylonians who were with him at Mizpah.
- 26 At this, all the people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together with the army officers, fled to Egypt for fear of the Babylonians.
- 27 In the thirty-seventh year of the exile of Jehoiachin king of Judah, in the year Evil-Merodach became king of Babylon, he released Jehoiachin from prison on the twenty-seventh day of the twelfth month.
- 28 He spoke kindly to him and gave him a seat of honor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kings who were with him in Babylon.
- 29 So Jehoiachin put aside his prison clothes and for the rest of his life ate regularly at the king's table.
- 30 Day by day the king gave Jehoiachin a regular allowance as long as he lived.

7월 30일 토요일

Matthew 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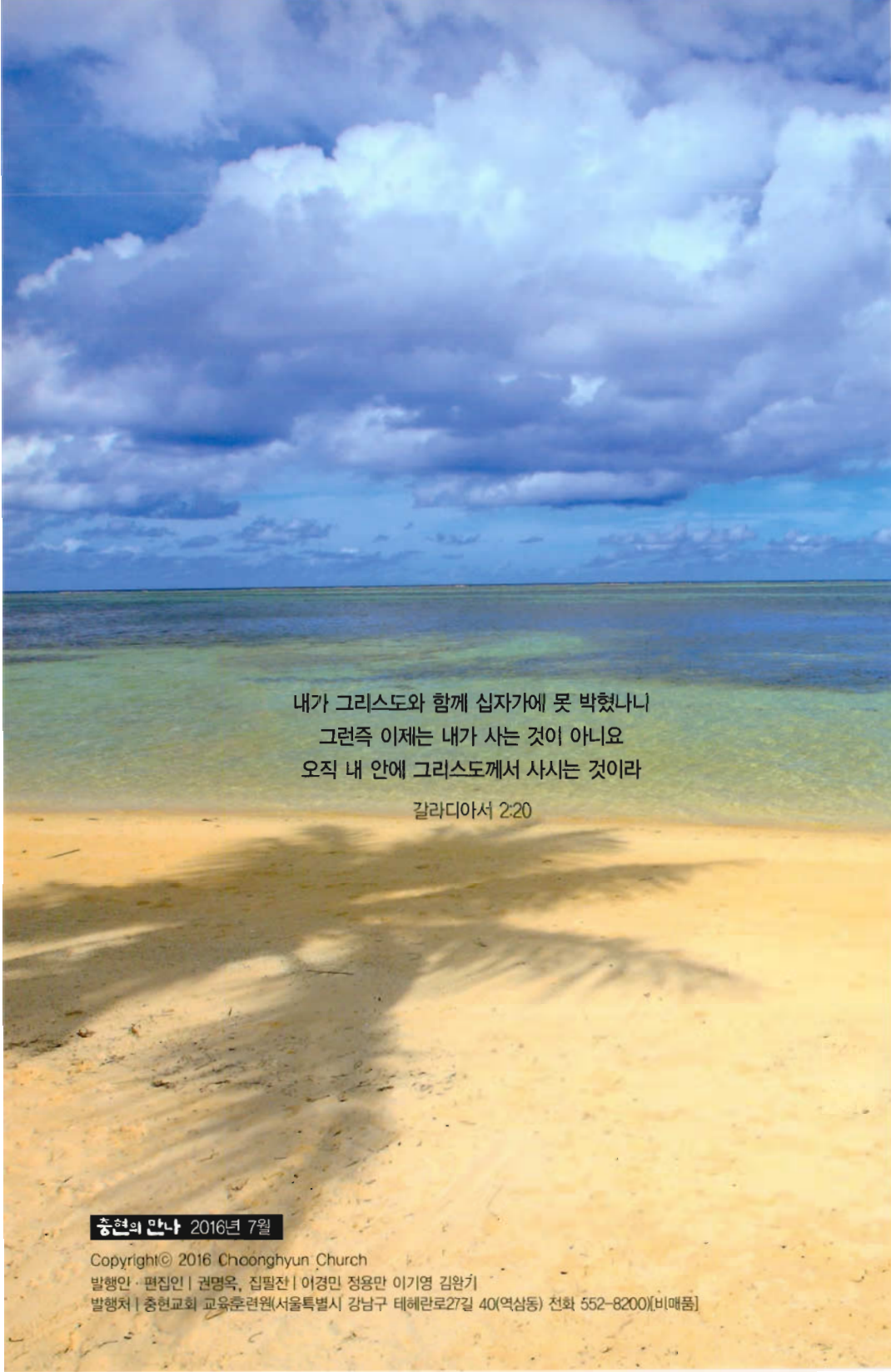
- 1 A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 2 Abraham was the father of Isaac, Isaac the father of Jacob, Jacob the father of Judah and his brothers,
- 3 Judah the father of Perez and Zerah, whose mother was Tamar, Perez the father of Hezron, Hezron the father of Ram,
- 4 Ram the father of Amminadab, Amminadab the father of Nahshon, Nahshon the father of Salmon,
- 5 Salmon the father of Boaz, whose mother was Rahab, Boaz the father of Obed, whose mother was Ruth, Obed the father of Jesse,
- 6 and Jesse the father of King David. David was the father of Solomon, whose mother had been Uriah's wife,
- 7 Solomon the father of Rehoboam, Rehoboam the father of Abijah, Abijah the father of Asa,
- 8 Asa the father of Jehoshaphat, Jehoshaphat the father of Jehoram, Jehoram the father of Uzziah,
- 9 Uzziah the father of Jotham, Jotham the father of Ahaz, Ahaz the father of Hezekiah,
- 10 Hezekiah the father of Manasseh, Manasseh the father of Amon, Amon the father of Josiah,
- 11 and Josiah the father of Jeconiah and his brothers at the time of the exile to Babylon.
- 12 After the exile to Babylon: Jeconiah was the father of Shealtiel, Shealtiel the father of Zerubbabel,
- 13 Zerubbabel the father of Abiud, Abiud the father of Eliakim, Eliakim the father of Azor,
- 14 Azor the father of Zadok, Zadok the father of Akim, Akim the father of Eliud,
- 15 Eliud the father of Eleazar, Eleazar the father of Matthan, Matthan the father of Jacob,
- 16 and Jacob the father of Joseph, the husband of Mary, of whom was born Jesus, who is called Christ.
- 17 Thus there were fourteen generations in all from Abraham to David, fourteen from

David to the exile to Babylon, and fourteen from the exile to the Christ.

7월 31일 주일

Matthew 1:18~25

- 18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Christ came about: His mother Mary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through the Holy Spirit.
- 19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a righteous man and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he had in mind to divorce her quietly.
- 20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 21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 22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 23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which means, "God with us."
- 24 When Joseph woke up, he did what the angel of the Lord had commanded him and took Mary home as his wife.
- 25 But he had no union with her until she gave birth to a son. And he gave him the name Jesus.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6년 7월

Copyright© 2016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편집인 | 권명옥, 집필자 | 이경민 정용만 이기영 김환기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물]